

완도항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세운다

전남도, 60억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해조류 가공공장·유통시설 설립

전남도는 19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60억원 규모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이란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 수산물

산지에서 가공·유통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2년 간 60억원을 투입해 완도항 부두에 급입수협이 위관장과 해조류 가공공

장, 유통시설들을 설립하게 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해조류(89%)를 산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유통해 높은 경쟁력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도와 완도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 다가오는 2014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해조류 가공품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준공되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해조류 상품화 시설을 구축,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어업인과 수

협의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박상욱 전남도 해양생물과장은 “그동안 단계별 평가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선 결과 최종 선정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산재예방 특별관리로 재해율 낮춰야”

산단안전 토론회 주영순의원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광주·전남지역 920개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감독관 배정으로 현장 밀착형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산업단지의 산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전남·광주권 국가산단 동절기 산업안전 정책토론회’가 지난 18일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새누리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영순(사진) 의원은 “전남광주권의 산업 재해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더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정밀한 안전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기준 전국 산업재해율은 0.59%인 반면 광주·전남권은 0.7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나 지난해 2006년 이후 올해까지 평균수치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을 정도로 광주·전남권역의 산업재해 발생이 빈번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시민석 광주지방노동청장은 “각 산단마다 특성이 있는 만큼 지역맞춤형 산재예방사업을

이러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광주·전남지역 920개 주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감독관 배정으로 현장 밀착형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이곤 전남대학교수는 “산단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연구와 콘텐츠 개발로 재난재해예방 산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돈희 전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함남석 대표(대불산단 입주기업), 정순천 공장장(울촌산단 입주기업), 김광열 대표(광양산단 입주기업), 김응옥 대표(광주산단 입주기업), 이현수 산단공 호남권본부장, 정재종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목표=고유석기자 yousou@

청소년수련관 인증 무안, 여성부장관상

무안군은 19일 “청소년수련관 인증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2013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우수기관 공모전’에는 전국 41개 청소년수련관이 참가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로 변화하는 세상’, ‘무안군 청소년합창단’, ‘청소년이 만드는 거리음악회’ 등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한 청소년 68명이 여성가족부장관명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청소년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해풍에 고평고들 잘 말라요”

기온이 뚝 떨어진 19일 완도항에서는 해풍을 맞고 고평고들 잘 마른 생선이 침샘을 자극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8호’인 주도를 배경으로 한 상인이 싱싱한 생선을 정성껏 손질해 완도항에 내놓았다. 상인들은 별과 바람이 잘 드는 이곳에서 3~4일 말려 냉장 보관한다.

(완도군 제공)

신안,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우수’

신안군은 19일 “2013년 정부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 우수 시책 지자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인근 시·군 자치단체의 버스 재정지원 규모(30억원 이상)보다 작은 20억원의 예산으로 오히려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저비용 고효율 교통정책의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신안군 등 우수시책 지자체로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 지방민권교섭체를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대중교통시책평가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신안군은 ‘군민의 행복을 신고 달리는 버스공영제’라는 주제로 우수 사례 발표 및 홍보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진도 서부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

진도군은 19일 ‘임해·지산면 등 서부권 지역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5억원 등 19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한 진도읍에서

민 지역의 농업인들의 경우 이용에 상대적으로 불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 광서초등학교에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정비실과 함께 59종 117대 농기계를 갖춘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사진)를 준공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전북

전통시장, 특색있는 명물시장 만든다

남원 공설→문화관광형 전주 남부→야시장조성 군산 명산→국수거리 남원 인일→주말장터 완주 고산→한우시장

전북지역의 전통시장이 특색 있는 명물시장으로 거듭 태어난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와 도내 33개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들은 지난 18일 부안 NH농협생명 변산수련원에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모임을 하고 특색있는 시장 조성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남원 공설시장과 무

남원시 ‘귀농·귀촌 1번지’ 금부상

올 326가구 678명 유치... 지난해보다 32% 늘어

남원시가 ‘귀농·귀촌 1번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남원시는 19일 “매년 300가구 이상 귀농·귀촌인 유치를 목표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 올해 1~11월 326가구에 678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47가구보다 32%가 늘어난 수치로, 최근 7년간 총 834가구의 귀농·귀촌과 견줄 때 유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98년 지리산 자락의 산내면 실상사를 중심으로 귀농 운동이 펼쳐져 전국의 귀농·귀촌 붐을 일

우리술 양성교육 수료식 고창북분자연구소



(재)고창북분자연구소(소장 정종태)는 지난 18일 우리술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이강수 고창군수, 선운산농협 오양환 조합장, 국순당 고창명주(주) 현홍순 대표, 정종태 연구소장 및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유정영기자 cy0370@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순창군, 보상금 지급

순창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위해 농작물 피해보상금과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여름부터 피해를 입은 141농가의 벼, 고구마 등 농작물에 대한 피해면적 5만9187㎡에 대해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18일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면적 100㎡ 이상, 보상신청액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총 6292만원의 보상금을 139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장승배기로 녹색공간 탈바꿈

삼천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승배기로 원충복지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완료됐다. 전주시가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거마로 사거리~우성그린아파트 앞까지 750m 구간을 녹색열린공간으로 탈바꿈 시켰다.

(전주시 제공)

단신

정읍시, 내년까지 배 350t 수출키로

정읍시는 19일 “농산물 주력수출 품목인 배 수출량을 올해 250여에서 내년에는 350t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읍시 배 파수능가들은 250여의 배를 캐나다, 대만 등으로 수출해 10억여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다. 정읍 수출 배 연구회(회장 박건중) 소속 40여명은 내년도 배 수출 확대

남원, 36억 들여 용배수로 사업 완료

남원시는 19일 “올해 토사 용배수로 및 노후 용배수로와 관련 36억원 예산을 투입해 35km의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 방지를 위한 농가들의 영농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년 사업비를 증액해 용·배수로 현대화

순창, 제6기 농촌혁신대학 졸업식

순창군은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6기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에서는 전체 44명의 졸업생 중 김필환 학생회장이 농촌진흥청장 공로상을 받았고, 김용욱씨 등 11명이 군수 표창패를 받았다.

이번 6기 과정은 지난 18일까지 30차례의 집합교육과 국내 선진농업 현장견학, 국외선진농업 벤치마킹 등 총 3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은 1기부터 6기까지 총 238명을 배출하는 등 순창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선도 농업인 육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대폭 확대

전북지역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확대된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총 61억원의 들여 저소득 주민의 노후 주택 2048가구 개보수를 실시한다. 올해 수리한 노후주택은 1883가구(사업비 50억원)였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노후 주택을 수리해 주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전북도가 처음으로 시행했다. 수혜대상은 자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등이며 지원보수와 보일러·창틀 수리, 화장실과 부엌 개량 등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